

올 불서출판계 전망

출판유통시장이 올해부터 개방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출판 시장도 열린다.

출판유통시장 개방은 외국의 자본이 서점과 유통회사를 설립해 기존의 서점과 유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아직 외국자본의 국내유통시장 참여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출판들에 따르면, 서울강남 지역에 1백~2백평 인파의 중대형 매장에 서점과 문구점 등 반판매점 등을 겸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당장은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약적인 확대 속에서 상대적 협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베스트셀러와 유명출판사의 책들이 서가를 독차지할 것은 변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시아론 편집부 윤재학차장은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이라는 유통경제적 측면을 넘어 문화적 혼란과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으로서의 출판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불사전문 대형서점의 설립이 개발에 대응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부정적 전망에 머물

출판유통시장 속속 개방 전문서점·필자개발 시급

고 된다. 불일시점 등 사회적 임의의 전문서점이 주요한 대안으로 주목된다.

출판시장은 빠른 96년, 유예기간을 거치면 97년 개방된다. 외국출판사가 국내에 진출, 직접 또는 국내출판사와 합작출판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부 출판사에서는 번역출판물의 재고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원고료 및 저작권료 인상과 출판물의 가격파괴도 예상돼 자본경쟁력이 약한 불사전문출판사에 미치는 타격도 심각하리라는 전망이다.

출판시장 개방에 따른 불사출판계의 대안은 무대적이다. 불교시대사의 고령 편집차장은 "젊은 연구자 및 필자들의 활발한 연구·저술활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뚜렷한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이미 일부 출판사에서는 당장 책을 펴내지 않더라도 연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염려하고 있을 뿐 심각한 것을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구조가 없다는 데 있다.

올해 이런 불서들이 나온다

사전·경전등 대형기획에 초점 시장개방 대비 번역물 줄고 국내저작 늘듯

올해 불서출판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기획물인 사전전반으로 꼽힌다. 가산불교대사전 선학사전 현대불교사전이 각각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불지사 시공사에서 나온다. 또 출판시장 개방에 따라 번역물보다 국내 저작물이 기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출판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사전은 불교학 연구 성과의 축적과 출판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올해 3종의 사전발간은 불교출판의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풀이된다.

가산불교대사전은 불교학은 물론 한국문화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 83년부터 준비해온 정10권 가운데 올해에 한국불교와 인도 불교권 1.2권을 펴낼 계획이다. 각각 2권, 1권2천여 항목의 표제어가 수록된다.



◇불교학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불교대사전이 3종이나 편찬되는 등 올해의 불서출판은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학사전은 지난해 펴낸 예정이었으나 감수가 늦어져 올해 출간된다. 우리나라 선종사상을 중심으로 선가의 용어 공안 선사 선사 사찰 등의 주제별로 9천여 항목의 풀이를 실는다. 시공사도 현대불교사전을 펴낼 계획으로 이미 표제어 선정 및 항목풀이를 마치고 감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전의 한글번역 및 선어록 발간도 주목되는 출판기획이다. 민족사가 지난해 12권까지 펴낸 경전시리즈를 올해 30권까지 발간해 마무리한다. 민족사는 이와함께 <한국의 선어록>을 전6권으로 펴낸다. 보조진각 해심 일연 테고스님 등의 선어록 및 상당암어 등을 정리, 한국선 정립의 계기가 되는 기획물이다. 백운 무비 종

한국선어록·영한불교성전·시집출간도 준비

진 일지 지한 돈연스님과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 등이 필자로 참여한다. 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고승들의 주요저술에 대한 해제를 담은 <불교전적사전>을 펴낼 계획이다.

현암사의 <한영대역 불교성전>은 외국인을 위한 경전이 없었던 지금까지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값진 출판으로 평가된다. 해인사 포교국장 해운스님이 편찬책임 맡아 진행하는 <불교성전>은 부처님 및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이론, 한국 불교사를 아우른다. 현암사는 또 한운종의 <불교대전>을 가로짜기 조판으로 바뀌 개정판을 펴낸다.

불교역사 및 고승전기 출간도 활발해진다. <근세한국불교 1백년사>(박경훈, 불광) <한국 불교사상학>(김상현, 우리출판사) <한국불교사>(불교시대사) <한국불교고승론집>(민족사) <현대고승인물경전>(불교영상) <한국 고승열전> 시리즈(우리출판사)가 지난해의 (이야기한국 불교사) <인물로보는 한국 불교사> <한국 불교사의 재조명> <불교사 100장면>에 더해져 우리 불교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학 분야에서는 출판시장 개방에 대비해 번역물출판을 지양하고 국내저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중론송>(김인덕, 불광) <선과 일본 문화>(보광, ) <유식이란 무엇인가>(김순용, 세계사) <원효연구>(이광래, 민족사) <고려부신정권과 불교계>(김광식, ) <보조국사의 화엄론집요>(최성열, ) 등이 관심을 모은다.

불교미술 분야에서는 <감로탱의 세계>(김우방 김승희, 예경) <동화의 예술>(권영필, )이 도록과 해설집으로 출간된다.

이밖에 불지사의 <부처님땀> 시리즈, <연꽃마을 이야기>(광덕, 불광) <경전동화>(동풍, ) 등의 어린이불서, 신행수기집 및 성인용을 위한 체계적인 불교입문서(불광)가 선보인다.

또 관심 밖에서 머물렀던 불교시집 출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불광출판부는 지난해에 이어 정운 성은 진관 자일스님 등의 시려시선 시리즈를, 민족사는 세계명사시선(정15권)을 펴낼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대승불교 정수담긴 최고의 애독서

새해의 공채가 눈부시다. 나는 새 아침의 빛이 내게도 어떤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저 아침빛에 담겨 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 느낀다. 하나의 불경을 읽어야겠다. 이 건 쉽게 얻은 생각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언제인가 나는 어떤 불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였다. 순서에 따라서 회중이 함께 불경의 독송을 시작하였다.

독송은 천천히 그러다가 빠르게, 어떤 데서는 역량이 높았다가 다음에는 낮게 울리는



김용구 <언론인>

**반야심경**

명사추천

불 서 100 선

실행통해 이루는 지혜완성의 길 보여

음령미가 있었다. 그렇게 경건하면서 아름다운 수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회중의 목소리가 어떤 심오한 역량이 되었다.

"이제야제 바라야제 바라야제 모지 사바하."

(세번 되풀이 하는 이 구절은 산스크리트어로 "가능하여 가능하여 피안으로 가능하여 피안으로 온전히 가능하여 깨달아자이다" 라는 주언인데, 어디서나 불자가 원어로 부른다 한다.)

내가 불설에 눈을 뜨고 불자와 가까이 하면서도 이 독송의 자리에서처럼 놀라움과 알 수 없는 기쁨을 겪은 적이 일찍이 없었다.

법회의 경건, 선남선녀의 독송의 감동, 독송에 함께 하지 못하는 고립감, 그러면서도 독송의 그럴 수 없는 아름다움...

땅 위의 모든 불국토에서 어디서나 가장 많이 본다는 <반야심경>,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독송이 그칠 날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지껏 나는 이 주옥같은 불경을 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소할 수 있었는가.

한 마디로 내가 불법의 스승을 못 만난 때문이다.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60년대 초엽부터였다. 그러나 내가 접한 첫 불서는 불설을 담은 것이 아니었다. 불설에 대한 논서였다. 나는 내내 논서를 놓지 않았던 거다.

그러하여 <반야심경>은 내가 펴보려는 첫 불경이 된다. 나는 그것이 가장 작은 불경이면서 불자들이 가장 애독하는 불경이라는 데

서 각별히 끌리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사 나는 불설에 첫 입문을 하려한다. <반야심경>은 적은지 모르나, 우리에게 전해진 불교, 대승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줄 안다.

늦었지만 지금의 나의 생각은 불경을 품으로써 불설 자체를 들으려는 것이다. 불교의 원질이 경이므로 <반야심경>을 열심히 읽고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그러하려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리라 믿는다. 한마디로 불설 자체에게다.

나는 <함>보다 <함>의 패러디임으로 <반야심경>을 읽고자 한다. 대승불교의 기원의 보람도 불법의 실행에 있었다. <심경>은 작은 경이면서 거기에 다섯번이나 되풀이된 말이 있다. 다른 아닌 '반야빠라미다'이다. 지혜의 완성을 그 실행으로 이루려는 근본 태도의 뜻말이다.

다른 사람처럼 나도 <심경>을 읽고 또 읽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행하도록 하려한다. 물론 나는 탁월한 스승들이 밝혀주는 불빛으로 공부부 하겠다. 일찍 원효선사가 초한 <반야심경소>가 인발되어 볼 수 없어도, 그의 읽기의 흔적은 <금강삼매경론> 같은 문에서 찾을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원효법사가 적은 <반야심경소>가 남아있다. 그밖에도 <심경>은 안팎의 고승대덕의 소초가 많기로 유명하다. 그렇다만 이 작은 경문의 읽기와 공부 부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겠다.

새해는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나에게 준다. 신성한 마음으로 바네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월간 「불교춘추」 창간**

불교문화 정립과 잃어버린 불교역사 발굴을 취지로 내세운 월간(불교춘추) 창간호가 나왔다.

발행인 최석환씨는 창간사에서 조선조의 억울장악으로 신라에서 고려말에 이르는 고승의 행적비 50% 이상 수난을 당했다고 밝히고 "전국 곳곳에 방치된 폐사지를 찾아내 역사를 복원하고, 해외에까지 이른 구법승의 행적을 비롯한 우리 불교사에 위업을 남긴 고승들의 자취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간호에는 기획특집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길·△죽음을 초월한 살아있는

**옛절터 복원·고승자취 재조명 눈길**

부처 △죽음을 대비 △자재하게 죽어간 선사들 △김입성 사체처리와 불교의 등신불을 비롯 '인물연구·석주스님' '특별법문-정공무상선사와 염불선(정화스님)' '최초의 선종사찰 단속사지를 가다' '역사인물기행-진표율사와 불사의방' '도선 탄생지 열암 성기동을 가다' '경허의 생애와 사상' 등을 실었다.

특히 단속사지(경남 산청군 단성면)는 구산선문 이전에 유입된 선종사찰로 한국불교사의 복원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곳으로 밝혀지고 있다. <불교춘추사 발행, 4천5백원>

**「한국불교사상사개관」 동국대, 영문판 간행**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경)은 최근 영문판 불교학술서 <Buddhist Thought In Korea(한국불교사상사개관)>를 출간했다.

한국불교의 해외홍보를 위해 펴낸 이 책은 한국의 선사사·화엄사상·천태사상·미륵사상·정토사상·밀교사상·관음신앙등을 알속·요약해, 일반인들이 한국불교사상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쉽게 서술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천수경	무비	불일
2	자네, 도가 된지 아나	효립	대원정사
3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격각
4	일기 쉬운 불교	권상부	불교방송
5	강을 건넌다면 땀독을...	관심	대원정사
6	환원 사람들의 이야기	윤승운	불지사
7	인도기행	법정	샘터
8	능엄경 주해	윤하	역경원
9	화엄경	무비	민족사
10	법구경	라즈니쉬	태일

구입문의: (02)737-0695

정신·육체를 잃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생수, 해독차, 염분·자연당 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이드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는 병**

-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재증상
-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약물중독 외

■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 안 내 ☎(0593)34-1115~6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구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 불교에 대한 관성적 관념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판신서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 著, 해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대지관좌선법(마하지관) 1.2 김무득 주석, 각권 8,000원

능엄경연구입문 김진열 저, 15,000원

조선불교유신론 현운운 저, 5,000원

돈오묘론 대주혜해 저, 해원역, 5,000원

미륵성전 이종익 저, 3,500원

백교회통 이능화 저, 4,500원

.....

도서 **인주사** 출판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02)720-9372 3Fax (02)723-0646